

## 한국주거의 재발견

# 강원도 영동 산간지방의 민가



정재국  
(관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산에서 보면 바다이고 바다에서 보면 산이다.  
그곳, 산과 바다와 가깝게 태백산맥 등어를 따라서 길게 늘어진 그곳이 강원도 영동지방이다.  
몇날, 몇일을 지나도 이야기 할 사람은 침묵의 산과 오라고 손짓하는 바다뿐.  
어쩌다 지나는 객 이라도 찾아오면 멍멍이는 반가워서 꼬리치며 먼 길 따라 마중 나오는 곳.  
태초의 인간이 숨쉬며 살았던 곳.  
푸른 숲과 산골짜기와 넘치는 투박함이 있는 곳.  
그곳에 사람이 있고 집이 있고 생활이 있다.”

### ■ 처음에

언제나 대상물은 그대로 있건만 보는 사람의 관점과 시대에 따라 그들을 다르게 보고 해석을 한다. 산은 그대로 있었고 집도 처음과 같이 있었다.

산속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가끔씩 그곳에 찾아와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의 눈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간다.

역센 자연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여야 하고 사회생활은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뿐인 산속 삶이다. 하루 종일 비탈에 나가 농사일을 소와 함께 하고 지친 몸을 가져와 쉬는 곳이다.

가장 친환경적 삶을 추구하여야 하고 기능성과 함께 다양성이 요구되는 도시속에 사는 현대인의 고도 같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산속 삶에서 지혜를 찾아본다.

어떻게 자연 지형과 환경에 적응 하였으며 건축물은 왜

그렇게 만들어 졌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 하였을까?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은 없는가?

### 1. 축입민가의 형성.

산간지방의 지형은 산비탈을 개간하여야 하고 사계절 경작을 하여야 한다. 경사진 길을 따라 오르내리는 것은 평지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느릿느릿 산길을 갈지자로 굽이돌아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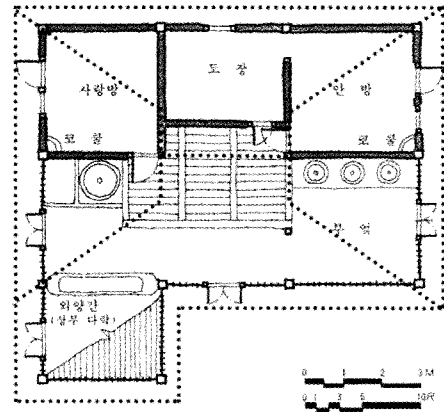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소들이다.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것을 산속에서 운반하고 농사일을 하기에는 어려워 소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 하였다.

사람과 소가 함께 산길을 올라가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천천히 ‘S’자로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 한국주거의 재발견



▲ [그림 1] 삼척 대이리 이종옥 가옥



▲ [그림 2] 삼척 대이리 이종옥 가옥 평면도

진 길은 이어지고 연속되어 산간의 길이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된다.

이 길을 따라 집들이 하나 둘 만들어지고 화전민의 가옥이 완성되며 이들이 점차 모여서 촌락을 이루게 된다. 즉 자연발생 산간 촌락이 되는 것이다. 집들은 길에 이어지고 길이 끝나는 곳에는 집이 있고 다시 이웃과 길로 연결되어 진다.

자연히 집들은 산을 등지게 자리하고 전면은 산 아래를 내다보게 된다.

전면은 비탈이고 농사일과 다용도 공간활용에 꼭 필요한 마당은 만들어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집들은 측면에 마당을 가지게 되었고 이곳을 입구로 출입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측면민가형 가옥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 2. 마당

우리나라 전통가옥은 안마당에 중요성을 두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내외부 공간과 연결되어 사회적 활동, 가족활동의 중심이 된다. 즉, 중앙 집중형의 전면 마당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측면에 있는 마당이 이러한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정면에 평지를 만들기 어려워

양측면에 마당을 두어서 양측 두 개의 마당을 가지게 되며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측입 전면 마당은 농사일과 바깥 활동을 주로 하는 공간이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를 낮은 돌 담장으로 쌓고 이곳에 묶어 두고 있다. 비스듬한 경사를 따라 소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곳에 짚 등을 넣어 퇴비로 활용하고 있다.

겨울이 되면 소들은 집안으로 들어가서 추운 겨울을 지낸다.

이곳은 농사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많은 활동이 필요한 공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며 사랑방을 접하고 있어 상류주택의 사랑마당과 행랑마당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측입 후면 마당은 안방을 접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활동공간이 된다. 부엌에 관계되는 일들은 이곳에서 주로 행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된다. 즉, 취사준비와 육아의 공간이며 집안에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곳이다.

이와 같이 측면 민가형의 강원도 산간지방가옥은 본체가옥을 중심으로 양측면에 마당을 각각 두고 있으며 사랑방과 안방을 접하고 있어 남·녀의 활동에 따른 공간을 분

1) 강원도 산간지방 자연촌락의 발생은 삼척 대이리 이종옥 가옥과 같이 전란을 피해서 집단 이주 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주후 그들의 산간지방 생활과 주거는 지역건축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국주거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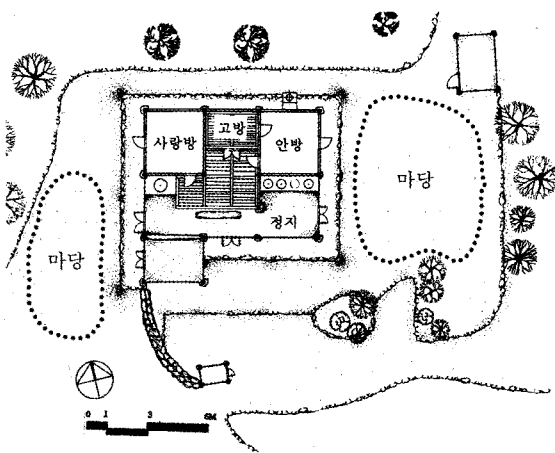
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류주택에서 채에 의해 기능분할이 이루어져 안마당, 사랑마당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산간지방에서는 본채에 의해 양측에 있는 마당이 각각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면서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내외 집.

산간지방의 민가에서 남·녀의 구분은 함께 일하며 늘 같이 협동하여야 하는 농경 생활에서 회석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당에서 독립된 생활방식을 영위하는데 익숙한 이들에게는 긴 겨울 실내 생활은 유교적 법도에 따른 내외법이 편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산간지방에서 찾아오는 손님은 친인척을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으나 방문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 며칠간 함께 거주를 하여야 한다. 먼곳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찾아온 그들의 만남이 짧게 끝나지는 않는다. 이때 양측의 마당은 내외법에 따른 활용도에서 긴요하게 사용 될 수 있으나 내부 생활은 그렇지 않다.

분명 실내에서는 서로 간에 내외법이 적용 될 수 있게



▲ [그림 3] 삼척 고천리 김 재봉 가옥

평면이 구성 되어야 한다.

삼척 고천리에 있는 김재봉가옥은 <그림 3>과 같이 사랑방, 고방, 안방이 있고 고방전면에 마루가 놓여 있으며 사랑방에는 여물을 꿰이는 아궁이가, 안방에는 취사를 위한 부엌이 있다.<sup>2)</sup>

<그림 3>의 평면을 보면 사랑방 아궁이 옆에 작은 마루가 놓여 있으며 이 마루를 통하여 사랑방 출입을 하고 있다. 또한 작은 마루와 큰 마루 사이에는 작은 판벽이 있어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즉, 큰마루와 작은 마루는 서로 구분되고 있어 용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작은마루는 사랑방 남자들이 실내에서 출입을 하는 곳이며 인축동거형으로 같이 생활하는 소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용한다. 잦은 출입에 따른 상호간의 불편함은 사랑방 전면에 마루를 잇게 하고 남·녀의 구분에 따른 시선 차단을 위하여 판벽을 큰마루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집을 ‘내외 집’이라 부르고 있으며 상호 엄격하게 내외 구분을 하며 실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 유교의 순수한 본뜻이 첫째, 개체 인격의 최소한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둘째, 이런 위에 전체 질서와의 어울림이 필요하다. 셋째, 이것은 강요보다는 인간본성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 위계질서의 방식으로 운용 유지 되어야 한다.<sup>4)</sup>는 생각으로 접근 하였을 때 이러한 내외 집은 작은 실내 공간 안에서 서로간의 독립성과 질서를 가지며 상호존중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유교적 관습은 산간지방의 민가 내부평면에 영향을 주어 일반 민간신앙이 깊숙한 산간주거에서도 ‘내외 집’이라는 가옥이 발생하게 하여 가정생활의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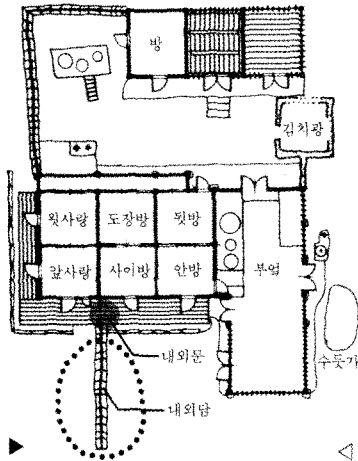
한편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평면의 양식이 함경도형 온

2) 이용준(2008) 영동산간지역 민가의 평면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장보웅. P153. 축입민가형의 평면에서 토벽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곳은 판벽 혹은 토벽으로 내외를 하고 있으며 근래에 건축된 것과 다르게 비교적 오래된 가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옛날부터 있어 왔음을 알수 있다.

4) 임석재(2005)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P165.

## 한국주거의 재발견



▲ [그림 4] 강릉 대전동 이 달원 가옥 평면도



▲ [그림 5] 강릉 대전동 이 달원 가옥 내외담

돌중심 겹집 형식이 많이 있다. 이곳에서의 남녀 공간 구분은 마루를 중심으로 한 내부벽체에 따른 구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sup>5)</sup>

외부에서 출입하는 동선을 남·녀로 구분하여 외부공간의 출입구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외담을 설치하고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내외담은 사랑방 전면 벽체에 이어서 낮은 축담을 마당에 까지 연속되게 길게 내어 밀어서 시선을 차단하여 사랑마당과 부엌마당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랑방 전면에 놓여 있는 뒤편마루에도 작은 판문을 만들어서 이를 ‘내외 문’이라 하고 있다.

전면 뒤편마루는 사랑방에서 안방까지 연속되게 이어져 있고 남·녀가 서로 같이 앉아서 있기에는 유교적 법도에 맞지 않아 뒤편마루에도 시선을 차단하는 판문을 달았다. 농사일을 하면서 편안한 복장으로 훌훌 털어가며 생활하는데 서로간의 조그만 범식을 지키면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담’과 ‘내외문’은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비교적 유교적 관습이 엄격히 남아 있는 강릉지방 주변의 산간지방 그중에서도 대관령 산간지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 4. 자연에 적응.

산간지방의 날씨는 언제나 급변하며 여름은 짧고 겨울이 길다. 추운겨울과 함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산짐승과 외부 침입에 대처 하여야 한다. 또한 척박한 산간지방에서 생활의 여유를 공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워 가장 편리하고 기능적인 가옥구조로 변화 되어 갔다.

자연스럽게 외부에 대하여 노출이 적고 작은공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폐쇄적인 형태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평면 구조를 갖는 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산간지방에서는 건축자재의 공급과 운반, 가공이 쉽지 않으므로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굴피, 너와, 돌 등 천연재료를 주로 하여 구조체와 수장재, 지붕 등에 사용하였다.

그중 창과 문은 조금 독특하다. 원래 창과 문은 빛과 바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출입을 하는 곳이다. 창호지 바른 창호에 스며드는 자연채광과 달빛은 우리나라 건축의 대표적인 정서적 광경이다. 그러나 산간 지방에서는 불빛을 보고 찾아올지도 모르는 산짐승에 대비하여 작은 창호를 내고 또한 삼중창호를 설치하여 뛰어 들어 올수 있는 큰 짐승에 대비 하였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삼중창호

5) 정재국(1995) 강릉과학산업단지 지표조사 보고서. 전통건축. 관동대 박물관. P376.

## 한국주거의 재발견

의 바깥은 대나무살을 촘촘히 빗살무늬처럼 엮어서 설치해 놓는다. 뱀, 산돼지가 와서 앞발로 치면 대나무의 탄력성에 의해 쉽게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강풍과 폭우는 빛과 바람을 실내로 편안히 들어오게 하기 보다는 방풍에 주력하는 창호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어열개’는 산간지방민가에는 없다. 다만 살아가는 기능에 충실할 뿐이다.

창호의 외부에는 때로는 판문이 설치 되어 보온과 실내 안전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외부에는 따로 담장이 없고 방의 외부 벽체가 담이 되고 봉당, 부엌의 외부 판벽이 담이 되는 것이다. 출입을 하는 대문이 없으므로 부엌의 외부 두꺼비담이문은 모두가 두꺼운 목재널로 짜여 있다.

### 5. 부엌 공간.

실내는 봉당과 부엌으로 흠바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부엌바닥은 마당보다 깊게 하여 찬 기운을 부엌에 남아 있게 하여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실내음식의 부패를 방지 한다. 여름날 긴 시간 외부 활동을 하고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 변질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 산간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다른지역보다 음식물 보관이 쉬울 수도 있다. 여름이 짧고 기온이 낮은 산간지방에서는 부엌의 바닥 높이를 마당보다 깊게 하여 낮은 온도를 실내에 유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봉당 바닥은 출입기능을 위하여 부엌바닥 보다 높게 하고 있다.

겨울과 실내활동이 긴 산간지방의 생활에는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 저장을 해 두어야 한다. 마루의 밑바닥은 환기와 통풍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곳에서는 흠바닥을 파고 그곳에 감자, 무우등 저장식품을 보관하고 있다. 실내에 남아 있는 열을 이용하여 추운겨울 생활에 필요한 식품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체 발열에 의한 실내온도유지에 상호 보완도 하는 것이다. 또한 농사일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양간 위에는 널마루를 깔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갖추

어서 보관하는 것보다 집안의 공간을 활용하여 모든 것들을 해결 하고 있다.

### 6. 한국민가의 아트리움(ATRIUM)

함경도지방 민가에는 정주간을 두어서 겨울철의 실내 활동을 이곳에서 하고 있고 울릉도에서는 우데기를 만들어 집주변 공간을 창고 겸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일반 다른 지방의 가옥보다 넓은 정지와 봉당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두 개의 부엌아궁이가 마루에 출입하는 봉당을 중심으로 좌·우로 연속되게 이어져 있어 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농사의 준비는 물론이고 이곳에서 가족간의 생활도 영위 할 수 있다. 전면 판벽에 의해 외부와 차단되고 있어 마치 판벽 담장이 있는 평지 민가 가옥의 전면 마당에 덧지붕이 있는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외부와 차폐되고 실내에서 가족들이 단란하게 활동 할 수 있으며 좌·우에 각각 독립된 외부 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 기능이 다른 두 곳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웃이 왔을 때 마당에서처럼 모여서 함께 이야기와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이다. 외부의 제한적 물리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비, 바람, 풍우를 피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판벽사이로 들어오는 측면의 자연채광과 지붕의 너와와 굴피사이로 들어오는 천창의 적은 햇살은 훌륭한 실내 자연 조명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곳은 한국민가의 아트리움(ATRIUM)이 되는 것이다.

저녁이 되면 불빛이 필요하고 사계절 항상 조명이 요구된다. 부엌에서의 활동이 가장 많고 마루, 봉당에서도 각각의 필요한 일들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엌과 마루사이에 흠과 돌로써 두등불을 만들어 두고 조명을 하고 있다.

아트리움에 불을 밝혀서 일반민가의 마당에서 할 수 있는 농사일, 이웃과의 만남, 아이들 놀이 공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마루는 안대청도 되고 부엌과 사랑방의 보조 공간, 거실 등 다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주거의 재발견



▲ [그림 6] 삼척 이 종옥 가옥 두동블

## ■ 마치며.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삶에는 인간이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농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산간지방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혼자 독립하여 살아야 하는 사회 환경은 집의 구조를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만들었다.

집터는 가파른 산비탈에서 작은 평지를 찾아야 했으며 폭우에 일어날 수 있는 산사태와, 풍우와 폭설, 외부침입 그리고 길을 따라서 이웃세상과 소통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했다. 이것은 'S'자 산길에서 산을 등지고 길을 따라 밖을 내다 볼 수 있고 전면 시야도 확보 할 수 있는 측 입민가형 가옥 구조를 만들었다.

내부평면은 본채를 두고 양측면에 사랑방, 안방을 배치 하고 각각 독립된 마당을 만들었다. 사랑마당과 안마당은 남,녀의 생활공간을 분리 하였고, 안마당은 가족들만의 내밀한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었다. 사랑방과 안방은 도장을 가운데 둔 평면 구조를 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외부 출입마당이 있어 때로는 삼세대 동거형으로 까지 발전 할 수 있었다.

내부공간은 사랑방과 마루사이에 판벽(내외벽)을 두어 상호 시선을 차단하여 유교법식에 따른 내외법을 지키고 있어 '내외집'이라는 산간가옥이 발생 하였다.

또한 실내생활이 많이 요구되는 추운 산간지방에서 필요한 넓은 실내 면적은 각 방과 마루의 전면에 있는 부엌,

방당 부분과 외부 판벽 사이에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은 가족생활, 이웃과의 만남 등으로 활용된다. 양측 마당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지붕과 판벽 사이의 자연채광을 받아들여 한국민가의 아트리움(ATRIUM)을 만들고 있다.

사람이 살았던 척박한 산간지방의 생활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디에 조금씩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지금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집은 옛날 그 모습으로 아직 그 자리에 있다.



## 참고문헌

1. 김광연(2005) 우리생활 100년. 집. 현암사
2. 김동욱(2007)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3.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청구.
4. 신영훈(2008) 우리한옥. 현암사.
5. 이상해(2008) 한옥에 살으리다.
6. 이용준(2008) 영동산간지역 민가의 평면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7. 임석재(2005)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8. 장보웅(2005)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보진재.
9. 정재국(1995)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삼척의 전통건축. 관동대 박물관.
10. 정재국(1995) 강릉과학산업단지 지표조사보고서. 전통건축. 관동대 박물관.
11. 한필연(2008) 한국의 전통 마을을 가다. 북로드.
12.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2권(1994)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